

새로운 책의 발견의 시대를 위하여

책다운 '책의 미학'

정병규

북디자이너·정디자인 대표

한국에서가클럽(회장 여승구)은 지난 12월 6일 '책과 미술'을 주제로 한 제3차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서체, 출판미술, 장정 및 종이 등 책을 미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에서운동을 위한 토론과 '세계의 아름다운 책' 기획전시회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 발표된 정병규씨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책의 존재이유

오늘의 책의 문화는 탄생 이후 그 존재에 대한 더없는 가치의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여지며 이미 책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많은 대중적 관심을 넓히고 있다. 날로 새로운 차원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도구들은 이러한 견해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디지털 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책의 운명은 쇠락의 일로를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는 서양식으로 말해 구텐베르크의 활자발명과 인쇄술의 발전에 못지 않는 혁명적인 사실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시대에는 책의 존재이유가 점점 쇠락해갈 것이라는 생각은 언뜻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을 만들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무엇인가. 백과사전이 한 장의 디스크로 변한다. 그렇다고 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회화가 공존하고, 텔레비전과 영화가 공존하듯 백과사전과 디스크도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의 출현은 오히려 우리에게 책다운 '책의 미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납활자가 사라지고, 사진식자라는 만질 수는 없어도 쓰다듬어볼 수 있던 활자마저도 거의 소멸되어버렸고, 이제 활자는 모니터 속에 감박이며 여위어가고 있다. 이는 활자가 인간의 촉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보의 알맹이만 추상화될 뿐 정보전달에 있어 인간적인 특성인 '감각의 문제'는 날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활자(活字)'는 스스로의 에너지에 의해 무엇을 생성하는 힘을 잃어버린, 인간의

손으로 직접 종이, 책을 만질 때

우리는 종이 속에 숨겨진

은밀한 자연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종이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책의 피부성,

종이의 질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디자인 역시 분명 새로운 감수성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에 의해 활동하는 생명력을 빼앗겨버린 신체가 되어버렸다.

기호로서의 활자

종이가 사라지는 것에 비례해서 일의 효율성을 가능케 하는 시대가 오늘이다. 서류(書類)는 말 그대로 종이로 되어 있다. 문서, 서류를 없애고 그 위에 놓여 있던 기호만 들어내어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흐름만 관리한다는 얘기이다. 흐름의 양끝에는 실사구시적인 관계자들만 남아 있다. 서류도 종이이고 책도 종이로 되어 있으니 서류가 사라지면 책도 따라서 사라져야 하는가. 그러나 생성이 멈추어버린 기호로서의 활자와 삶과 생각의 에너지의 활동성을 전제로 한 활자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호, 활자가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냐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리라. 생명력 있는 활자가 살아가는 곳, 그곳은 종이로 된 책이다.

얼마든지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책꼴의 문서철과 '책'을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이 두가지는 공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종이로 되어 있다. 전자는 앞으로 종이라는 물질의 표면에 몸담을 필연성은 없어져버렸다. 그러나 책은 종이를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은 오히려 책의 세계가, 책이라는 존재가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책과 종이와의 관계가 더욱 주목을 요하는 계기라고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어떤 꼴로 어디에 존재해도 관계가 없는 정



'세계의 아름다운 책' 전시회에 출품된 책들.

보 위주의 책들이 떠나버린 책의 마을에는 진짜 책만 남게 될 것이다. 책의 완성도는 책을 이루고 있는 종이의 문화적, 예술적 완성도와 다른 시대에, 종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바로 새로운 책의 문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또 북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의 새로운 존재감에 대한 인식, 무엇보다도 종이의 질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손뽀아야 할 점은 책은 손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책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견고하게 닫힌 문과도 같은 엄폐성을 가진 존재이다. 책, 종이, 그리고 손이라는 관계에서 우리는 종이의 피부감, 즉 종이의 질감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이의 질감이 모여서 책은 살아 있는 형태를 취한다. 책은 손의 기능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책의 시대

손으로 직접 종이, 책을 만질 때 우리는 종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자연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문명을 추구함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정보의 다량소유이고 그 수단인 갖가지 종류의 미디

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온갖 미디어들은 보는 것 아니면 듣는 것에만 치중함으로써 인간에게 '감각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그중에서도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감각, 즉 촉각은 가장 퇴화된 감각이 되었다. 이러한 촉각의 새로운 부활에 대한 무의식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욕망은 종이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터이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책의 피부성, 종이의 질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책의 시대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종이의 '접촉적 질감'이다. 그외에 종이는 그 표면, 종이마다의 표정에서 오는 '시각적 질감'도 가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질감은 새로운 종이개발, 종이 디자인에 매우 중요하게 응용되는 개념이다.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북디자인의 작업이 이제는 종이의 질감의 세계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은 디자이너로 하여금 단순한 조형적 상상력을 넘어 물질적 상상력을 키우도록 옥죄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립된 실체, 독립적 상품으로 완성되는 북디자인은 분명 새로운 감수성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